

SBS 매거진 5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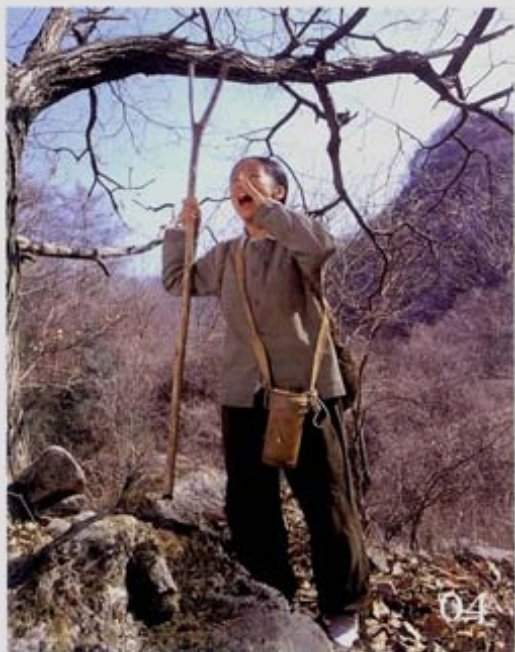


CONTENTS



표지설명

지침을 모르는 자신감과 혼신의 힘을 다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척. 차츰 연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할 일은 역시 연기라고 생각하는 그는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배우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연기자이다. **사연 / 조광희**



04

- 04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 「덕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한 파란만장한 가족사 · 남도영
- 10 **일요일아침드라마 / 「좋아 좋아」**
일요일 아침을 힘차게 여는 꿈과 사랑 · 김중혁
- 14 **새 앵커 / 박수택, 최영아, 신우선 앵커 · 최병일**
- 16 **커버스토리 / 박철**
카오스의 내면을 간직한 사나이 · 이지혜
- 프로그램 엿보기**
- 20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배미라
- 22 「아름다운 성」 · 박정훈
- 24 「러브게임」 · 강만훈
- 26 「뷰티풀 라이프」 · 이상훈
- 28 「남회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 김창희
- 30 **에필로그 / 「이홍렬쇼, 그 못다한 이야기**
화려한 역사보다 일상이길 바라며... · 김태성
- 32 **줌 인 / 이병희 하나운서**
상쾌한 아침을 전한다 · 김현경
- 34 **제작기 / 「출발! 모닝와이드」**
세상에 아직 이런 나라가 있구나... · 이덕건
- 36 **방송가 사람들 / SBS 골프채널 광고팀 김용민**
세상, 그 넓은 필드를 향한 꿈과 야망 · 김정덕
- 38 **자회사 뉴스**
- 40 **라디오 세상 / 표준 FM**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이은경
- 41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은지향
- 42 **라디오 세상 / 파워FM**
「유영석의 뮤직 사이트」 · 김경희
- 43 **새 얼굴 / 「기쁜 우리 젊은 날, 새 진행자 교수 · 최취경**
- 44 **TV 및 라디오 편성표**
- 48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51 **이제는 생명이다 · 허강일**

SBS 2000년 2년 3분기
이제는 생명이다

SBS 매거진 2000년 5월호

- 통권 제102호 2000년 5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 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석형 부주간 / 박희실 기획 / 남지혜, 이장숙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서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 · 디자인 / 디자인 비, 전화 382-3828 * 스타일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진호 인쇄 / (주)영문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sbs.co.kr입니다.



10



43

한 여인의 삶을 통한 파란만장한 가족사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 「덕이」

기획/윤영목, 극본/이희우, 연출/장형일, 제작/SBS프로덕션
토, 일요일 밤 8시 50분 방송



엇갈린 입양에서 비롯된
두 여인의 악연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 과정에서 비극적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
덕이의 삶은 그 주변에 펼쳐지는
가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된다.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덕이」는
60~70년대의 우리의 모습을
아련하게 그려내고 있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지는
귀진과 귀덕. 그들의 인생 속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덕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콩쥐팥쥐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를 다시 한 줄로 늘리면 착한 귀덕이(신지수 분)와 못된 귀진이(이정윤 분)가 서로 엮어내는 인생이야기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덕이 역시 한 줄로 정의되지 않는다. 선악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두 주인공, 귀덕과 귀진을 축으로 드라마는 전개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개입되는 갖가지 스토리와 사건들이다.

콩쥐팥쥐 얘기라는 선입견은 필요가 없으며 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그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터이다. 이희우 작가는 "같은 선악구조라도 어떻게 연출하고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백과 흑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다는 논리다.

엇갈린 입양, 시작된 악연

드라마의 배경은 주로 60년대 충북 제천 월악산 자락. 정미소를 운영하는 정씨 집안은 한때 마을의 가장 큰 부자였으나 아들인 난봉꾼 정한구(박영규 분)가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줄행랑을 친 뒤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 집에, 갓 태어난 귀덕이가 빨치산인 아버지의 손에 의해 맡겨진다. 귀덕이는 같은 날 태어난 정씨 집안의 딸 귀진이와 함께 이란성 쌍둥이로 자라게 된다. 물론 출생의 비밀은 어머니(고두심 분)를 비롯해 몇몇 가족들만 알기로 한다.

드라마는 초반 몇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귀진이와 귀덕이의 선악을 대비시켜 나간다. 가장 큰 사건은 역시 귀진이의 입양이다. 얘기는 산삼으로부터 시작된다. 귀덕이는 동네아주머니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산삼을 발견하지만, 동네아주머니들의 '작당'에 의해 산삼을 빼앗긴다. 산삼을 되찾으려는 귀덕이는 군수와 경찰서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주먹패로 자란 큰오빠 병수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결과를 낳는다.

구박받는 귀덕이.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다. 한 해 전 어린 딸을 잃은 군수와 귀덕이를 기생으로 키우려는 기생집 주인이 모두 귀덕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다. 이 과정에서

귀진의 농간이 개입된다. '미운 귀진'의 음모로 귀덕이는 기생집으로 쌀 다섯 가마에 팔려 가고, 귀진은 귀덕이 대신 군수 집에 입양돼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선악 대비와 사건들은 귀덕과 귀진이 성장한 다음에도 계속된다.

출연진들의 빛나는 연기가 주는 재미

전체 즐거리를 떠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덕이」가 주는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등장인물, 특히 김혜영이 1회 때 보여준 방어리 연기는 인상적이었다. 빨치산 대장 김주승의 아내로 귀덕이를 낳았다. 하지만 김주승은 험한 도망생활을 위해 읍내 정미소집에 밭덩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김혜영은 딸과 생이별하는 슬픔을 '그야말로' 표정으로만 소화해냈다. 이런 역할은 자칫 오버하면 안쓰러운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절묘히 오버와 절제의 경계선을 지켜냈다. 그 때문일까. 김혜영은 원래 1회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다시 '부활'해 마을 근처의 암자에서 귀덕이의 주변을 맴돌게 된다.

이러한 절제는 고두심과 박영규에게서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박영규는 「순풍 산부인과」의 영규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선보인다. 미달이 아빠가 미워할 수 없는 훈수라면 정한구는 박영규 표현을 보면 '네거티브'한 역할이다. 주색잡기로 밤을 새우다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돈을 사정한다. 늘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결국에는 서울로 도망친다. 그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 춤바람이 난 정한구는 첩(이자영 분)까지 얻어 다시 마을로 돌아와 댄스홀을 세우고 두 집 살림을 차린다. 박영규는 "시청자들이 미워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끝에서는 시청자들이 정한구를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고두심에게는 드라마 초반 이야기 전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 듯하다. 50부 중 23, 24부까지는 귀덕이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고두심에게 드라마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고두심은 자연스러운 연기로 이를 훌륭히 소화해 내고 있다. 다만 어린애를 낳을 때 보여줬던 30대 초반의 분장은 무리가 있어 옥에 티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아역들은 눈에 익는다. 신지수는 CF 등으로 자주 모습을 내밀었고, 이정윤은 「은실」에



가족사 속에 우리의 현대사를 조망할 「덕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것을 많이 보여줄 예정이다. 극 중에는 심마나라든가 판소리같은 우리 전통적 소품들이 자주 등장하며 특히 SBS일산제작센터의 대형 야외 세트장에는 60년대의 거리가 재현되어 현실감을 더한다.

장항일 프로듀서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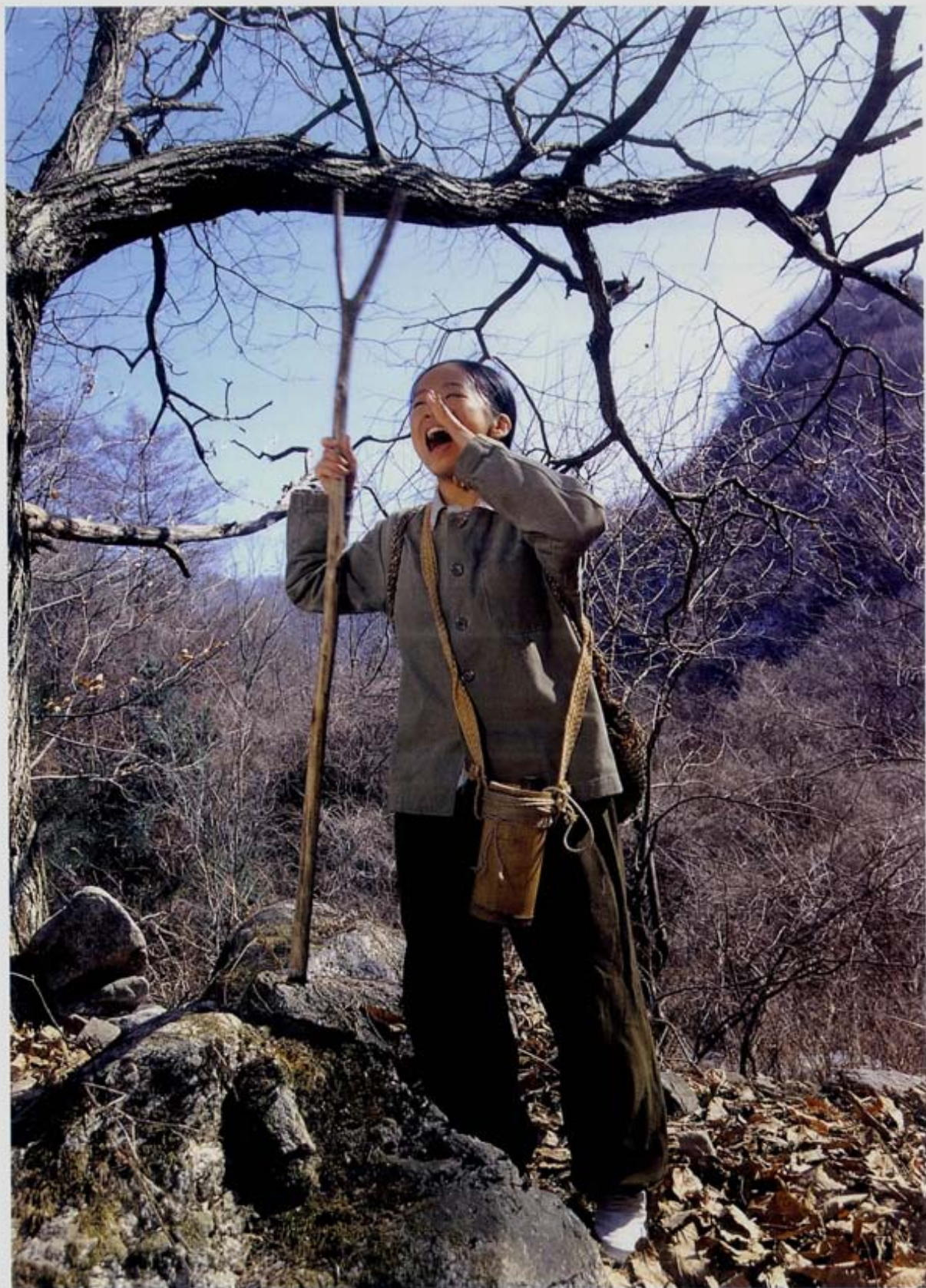
‘강한 한국 여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



「형제의 강」 이후 두 번째로 가족사를 다루게 됐다. 50, 60, 70년대는 전쟁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산업화의 격랑과 민주화 투쟁이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운명적으로 같은 날 태어난 귀덕이와 귀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통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역사와 함께 흐르는 가족사, 그 가족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헤쳐나가는 귀덕이를 통해 진실과 희망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더불어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집초같은 생명력을 발휘해낸 강한 한국 여인의 상을 담아내려 한다.

김현주와 강성연, 정소영, 이자영 등의 젊은 연기자들이 제 몫을 해내라고 보여 고두심이나 박영규, 조형기 같은 조연들이 탄탄해 기획 의도를 소화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전 제작기간도 충분히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기대한다.





출연한 경험이 있다. 「심봤다」를 연속으로 외쳐대는 신지수는 마치 지난해 인기를 얻었던 「국회의 아역 박지미」를 연상시킨다. 성인 귀덕과 귀진은 김현주와 강성연이 맡는다. 일부에서는 김현주가 오히려 귀진이에 어울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김현주가 연기하는 「덕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그때 그 시절 옛보기

「덕이」 같은 시대극이 주는 또 다른 재미는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이다. 이희우 작가 같은 베테랑이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모습들이 그려지면 시청자들은 손뼉을 치게 된다. 지난 1회 때는 '지붕 지랄'이라는 특이한 모습이 그려졌다. 산고를 겪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지붕에 올라가 갖은 소리를 지르며 '지랄'하는 풍습인데 「덕이」에서 처음 본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또 먹을 것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 자기보다 큰 놈들을 마구 부려대는 골목대장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장면들이다.

이 외에도 제작진은 「은실이」의 무대로 이용됐던 SBS일산제작센터에 대형 야외 세트 장을 직접 마련해 60년대의 거리를 재현했다. 특히 조형기와 김혜숙이 각각 주인공 이발소와 미장원도 향수를 자극하는 소품 구실을 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가족사

「덕이」가 노리는 또 다른 의도는 가족사 속에 현대사를 녹여내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것을 많이 보여



「덕이」가 주는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등장 인물을 보면 귀순 여배우 김혜영이 귀덕이의 생모로 나오고, 고두심, 박영규가 각각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로 등장한다. 특히 박영규는 「순풍 산부인과」에서 보여준 미달이 아버와는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가 대단하다.



주겠다는 것이다. 「안중근」, 「약속」, 「여자 여자 여자」등을 연출한 장형일 프로듀서와 「형제의 강」 등을 집필했던 이희우 작가의 만남은 이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 실제로 김주승이나 다른 빨치산의 모습이 좀 더 인간적으로 그려졌다. 이 외에도 70년대 유신과 같은 정치적 상황들이 드라마 곳곳에 녹아들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 격변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작가의 공언처럼 심마니나 판소리같은 우리 전통적 소품들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귀덕이가 기생집에 들어가 판소리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당초 한의학까지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허준」의 인기 탓에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대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주체곡은 일본에서 활약중인 가수 계은숙이 담당했다. 김희갑 씨가 작곡한 주체곡은 판소리와 소프라노의 코러스가 곁들여지며 OST는 5월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글/ 남도영 · 문화일보 방송담당 기자, 사진/ 김연식



일요아침드라마 | 「**좋아 좋아**」

기획/공영파, 극본/권인한, 박범수, 연출/조남국, 이용석
일요일 아침 8시 50분 방송



일요일 아침을 힘차게 여는 **꿈과 사랑**

일 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려는 이들을 위해 SBS는 일요일 아침드라마 「**좋아 좋아**」를 방송한다. 「**좋아 좋아**」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꿈과 사랑을 다룬다. 직장 과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애환을 소재로 했으나 전개 방식은 무겁지 않다. 한마디로 웃음이 넘치는 상큼하고 감쪽한 캐릭터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시트콤과 드라마의 경계를 오가며 유쾌하게 때론 빠르게 내용이 전개된다.

다시 시작된 우정과 경쟁

깔끔하고 잘 생긴 외모에 세련된 매너, 꼼꼼하면서도 순발력이 있는 일 처리로 완벽해 보이는 전형적인 도시풍 남자 박지섭(소지섭 분), 투박한 외모에 약간은 촌스러운 분위기를 보



생활 신조는 멋지게 살자고, 수영복은 삼각팬티를 즐겨 입고, 스웨치를 잘하고 100미터 달리기엔 강하며,

아무리 슬퍼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남자 박지섭
생활 신조는 학하게 살자고, 수영복은 사각팬티를 즐겨 입고, 족구를 잘하고 오래달리기에 강하며, 드라마를 보며 평평 울기도 하는 남자 권오준.

이들 두 남자 사이에 선, 털털하면서도 푹푹 휘는 신세대 직장 여성 운조아. 이들을 둘러싸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까?

이지만 우직하고 낙천적인 남자 권오준(권오중 분),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장난감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박지섭은 회사 동료 운조아(김선아 분)를 마음에 두고 시켜어 보려고 하던 중, 권오준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결국 운조아를 사이에 두고 사랑의 싸움은 시작된다.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는 박지섭은 권오준에게 우월감을 갖고 있지만 고교 시절 한 여학생을 빼앗기면서 한편으로 열등감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후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당황하게 된다.

꿈이 있고 사랑에도 자신만만한 사회 초년생인 이들 두 남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우정을 나누면서도 때론 운조아를 두고 경쟁을 한다. 그녀를 위한 일이라면 의기투합해 동지가 되기도 하며 그들만의 색다른 사랑법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지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재미를 더해주는 이 드라마의 특징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개성이 부각되는 캐릭터 드라마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배우들의 실제 성

격, 개성을 자연스럽게 살려 극의 생동감과 재미를 더한다.

편안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권오중은 이번 드라마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다른 드라마와는 또 다르다.

“어릴 때 「한지붕 세가족」을 너무 재미있게 보아서 일요 아침드라마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져 기쁜 마음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세대 연기자로 그동안 여러 드라마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였던 소지섭은 이번 드라마에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려 한다.

“권오중 씨와는 처음 함께 해보는 작품이지만 내용이 재미있어 금방 친해졌어요. 코믹한 부분이 많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연기 변신을 꾀하고 싶습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모인 즐거운 촬영장

연기자와 스태프들은 물론 촬영장 분위기도 화기에애해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는 김선아 또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새롭다.

“일요 아침드라마도 처음이지만 극중에서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 약간은 설레요. 그리고 직장 여성 역할은 처음이라 정장을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만 연기자로서 이미지 변신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박지섭, 권오중, 윤조아 역을 맡은 세 연기자 이외에도 개성이 강한 성격 배우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어떻게 극을 이끌어갈 지 기대가 된다. 윤조아의 아버지이자 평화동동장인 운세만(임현식 분), 운세만의 며느리 한지혜(조현숙 분), 운세만의 막내딸 윤조은(김효진 분), 운세만의 집 하숙생이자 무명 개그맨인 허기원(윤기원 분), 왕실업 대표인 주왕(김기현 분), 제품 개발실장 고민섭(이희도 분), 개발실 직원인 나도영과 오미리(이선진 분, 함소원 분) 등이 개성 있는 역할로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선진, 함소원, 김효진 등 신세대 여자 연기자들은 순종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닌 서로 개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캐릭터를 맡아 눈에 띈다. 이들



의 개성과 뚜렷한 모습이 드라마의 생동감을 살린다면 반면에 임현식, 김기현, 이희도 등의 중견 배우들의 능숙하고도 코믹한 연기는 드라마의 안정감과 재미를 더해준다.

행복한 삶을 찾는 남자들의 이야기

“이 드라마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남자들이 불만한 드라마입니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 직장 생활의 애환, 대가족 생활의 정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드라마는 전개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혼의 남녀들, 홀아버지, 과부며느리 등 어떻게 보면 모두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개성이 강한 그들이 극이 진행되면서 서로 갈등도 하지만 사랑과 꿈을 키워가면서, 짝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연출을 맡은 조남국 프로듀서, 이용석 프로듀서는 드라마의 방향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다. 그러나 다 이야기하지 않은 작품의 진면목은 드라마에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이번 드라마가 첫 작품이다. 조 프로듀서는 「미우나 고우나」, 「8월의 신부」, 「임격정」, 「이웃집 여자」 등에서 조연출을 했고, 이 프로듀서는 「세 남자 세 여자」, 「해빙」, 「바람의 노래」, 「그녀의 선택」 등에서 조연출을 했다. 차분한 성격의 조 프로듀서와 활발한 성격의 이 프로듀서. 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서로에게 배우며 경쟁할 것이다.

이제 2명의 연출, 2명의 작가를 비롯한 모든 제작진들이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쏟아 부은 푹푹 튀는 드라마로 우리들의 일요일 아침잠을 빼앗으려 한다. 깨어있음이 상쾌한 아침을 만들려 한다. 꿈과 사랑으로 가득 찬 드라마를 보며 한바탕 웃을 수 있다면 일요일 하루가 즐거워질 것은 분명하다는 명제 아래. **SBS**

글/김종희 · 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주말 「SBS 8 뉴스」 박수택, 최영아 앵커

부드러움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박수택 앵커. 그는 흰머리가 성성해지는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고 싶다는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이다. 박앵커와 함께 주말 「SBS 8 뉴스」를 책임질 최영아 아나운서는 똑 소리나는 외양이 조금 차가와 보일 것 같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속이 깊고 따뜻한 여자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주말 저녁은 왠지 상쾌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다.

박수택 앵커는 이미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얼굴이 아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SBS 나이트라인」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시간대

뉴스를 끝내고 나서 나직한 한숨과 함께 온몸으로 스미는 희열이 좋다.

그는 부드러움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박수택 앵커가 뉴스를 전달하는 원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청자들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서되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서운 논평을 가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원칙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자의 기사를 통해 혹은 기사를 전달



를 바꿔 주말 저녁을 책임지는 주말 「SBS 8 뉴스」의 진행자가 되었다.

“중요한 자리를 맡고 보니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쉬는 주말 시간대에 찾아뵙게 된 만큼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첫 소감을 밝혔지만 실상 박앵커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천진한 호기심과 설렘이 묻어 있는 듯했다. 그에게 방송은 영원한 첫 사랑이다. 청춘의 빛나는 시기를 현장에서 취재를 하며 혹은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보냈다.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을 때면 항상 처음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저릿하게 느껴지는 긴장감이 좋고,

하는 앵커의 멘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인으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앵커는 자신을 앵커라고 부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했다. 자신은 그저 뉴스를 전달하는 진행자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흰머리가 성성해지는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는 기자로 남고 싶다는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 박수택 앵커. 그가 뉴스를 진행하는 주말 저녁은 왠지 상쾌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다.

박앵커와 함께 주말 「SBS 8 뉴스」를 책임질 최영아 아나운서는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는 방송인이다. 똑 소리나는 외양이 조금 차가와 보일 것 같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속이

깊고 따뜻한 여자라고 입을 모은다.

박수택 앵커가 그녀와 방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과분하다고 할 정도로 주변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 동안 그녀는 최선규 아나운서와 함께 「특명! 아빠의 도전」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익혔다. 뉴스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주말 「SBS 8 뉴스」 첫 방송 때는 마치 처음으로 뉴스 진행을 맡은 신출내기처럼 긴장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출발! 모닝와이드」를 비롯하여 「특명! 아빠의 도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진행으로 널리 인정을 받아온 베테랑 아나운서다.

“박앵커께서 워낙 뉴스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스타일인 만큼 저는 보다 알찬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방송사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남의 얘길 귀담아 듣고, 어른들에게 잘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방송 일을 한다는 그녀는 결혼 3년 차 주부. 외로운 사람이나 결핍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방송인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꿈은 기회가 된다면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것이다.

「SBS 나이트라인」 신우선 앵커

일에 대한 소신이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우선 앵커. 그는 「나이트라인」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나 혹은 「SBS 8 뉴스」의 재팬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세계가 급속하게 글로벌화 하면서 국제뉴스에서는 어느 시간대보다 더 새롭고 중요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최신 소식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단 있는 목소리의 신우선 앵커는 일에 대한 소신이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 「SBS 나이트라인」의 새 앵커가 된 신우선 앵커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3년 전 「출발! 모닝와이드」의 ‘뉴스센터’, 주말 「SBS 8 뉴스」 등을 진행했고, 이후 줄곧 현장에서 활동하다 다시 앵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신앵커는 「나이트라인」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나 혹은 「SBS 8 뉴스」의 재팬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세계가 급속하게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뉴스에서는 어느 시간대보다 더 새롭고 중요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최신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얼굴이나 이미지보다는 러시아특파원으로 지냈던 경험이나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터득한 관록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이 좋아 지난 84년 방송계에 입문한 후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신앵커는 SBS 창사 특집으로 취재했던 아프리카 원시 부족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당시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보기 좋은 앵커보다 밑바닥에 실력을 갖춘 앵커가 되고 싶다는 신우선 앵커의 꿈은 그렇게 좋아하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남고 싶은 것. 그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며 저녁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려도 될 듯 싶었다. **SBS**



카오스의 내면을 간직한 사나이



언제나 그렇듯이 점심 식사가 끝난 오후는 나른하다. 더군다나 긴 긴 가뭄에 수분이 모자라 꽃잎이 제대로 피기도 전에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봄날의 오후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아, 버스에 앉아 혹은 승용차 운전석이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친 영혼을 끌어올리며 안간힘 쓴다. 그런 우리의 오후 2시를 한 손에 휘어잡은 사나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박철.

그는 위로한다. 일상을 다독여주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모자람을 느끼면 악을 쓰고, 혼신을 다해 춤을 춘다.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온 몸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 둘 깨어난다. 그와 함께 세상을 신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른한 오후 2시를 거침없이 털고 일어서는 것이다.

철학자가 될 뻔한 배우

섬세함, 자상함, 사려 깊음, 대범함, 정의로움, 급함, 느림. 그가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표현들이다. 특이한 점은 공통점을 가진 이미지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들 이 마구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그의 내면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그의 참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혼돈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질서를 잡지 못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똑바로 질서를 잡고 서있다. 마치 카오스처럼.

누구는 브라운관에 비치는 그의 모습이 처음과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이는 물론 외형적인 모습에서 뿐 아니라 연기의 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굳이 변화의 시점을 고르라면 「별은 내 가슴에」에 이진석 감독을 만났던 그 시기를 꼽는다. 엄밀히 말하면 변화라기 보다는 그의 연기에 개성과 캐릭터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가 보여준 변화의 폭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직도 장충고등학교 교정

누구든 브라운관에 비치는 박철의 모습이 처음과 많이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연기 생활 중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박철.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은 연기라고 생각하며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배우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

박철



에서 소리없이 철학 책을 탐독하던 그 소년이 지금의 박철이라는 사실을, 동창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있는지 없는지 그다지 표나지 않던 소년, 하이데거와 쇼펜 하우어, 키에르케고르, 융, 프로이드를 읽으며 청춘의 어린 싹을 키우던 소년이 박철이다. 그가 철학 서적에 심취한 데는 열 두 살 위인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형님은 현재 신부이자 카톨릭 신학대학의 교수이다. 아직도 동생의 인생을 염려하고 애정 깊은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형님을 그는 존경한다. 이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카오스 같은 내면의 실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어지러운 가운데 가지런히 자리잡은 질서. 그는 전투적 이면서도, 항상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가 지켜질 길 원하며, 배우로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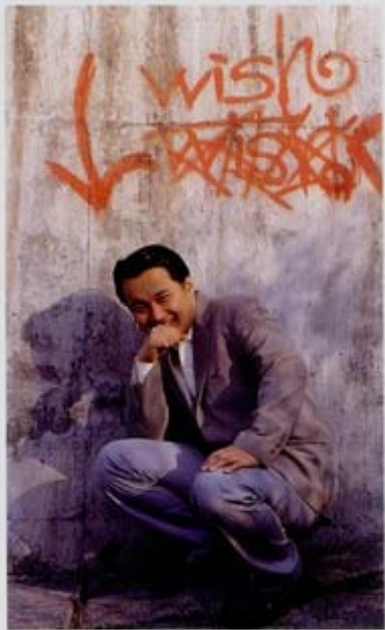
그는 현장에서 캐스팅 됐다. 충무로 한 영화사 녹음실 녹음 기사로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다. 푹푹한 대학생 역이 갑자기 그에게 주어졌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확 바뀌어 버렸다.

“끼란 누구에게나 있거나, 아니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누구나 분위기만 잘 잡히면 멋지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실감나게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노력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최고가 될 거라는 자신감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침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머릿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로 전광석화와도 같이 인생은 흘러갔다. 단 한 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혼했다. 설새 없이 흘러온 시간을 틈내 가정이란 공간을 만들었다. 가정은 여유와 평화로 그를 감싸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온통 푸릇푸릇한 청소년 드라마에 갓 소년의 티를 벗고 등장했던 청년, 그는 이제 예쁘고 귀여운 아기의 아빠가 되었다. 요즘 그는 행복하다. 강렬하고 급한 성격을 잠재울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리따운 아내와 들





배기 딸이 있는 가정이 바로 그곳이다. 누구 앞에서나 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얀 이빨이 앙증맞게 돌아난 딸이 앞에서는 꿈쩍 못한다. 그리고 꿈쩍 못해서 즐겁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힘을 얻고 세상 밖으로 나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그의 행복의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

그가 철학자가 아닌 배우가 된 건 어쩌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자신감과 자기확신을 다지며 그는 오늘에 이르렀다. 지지치 않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힘은 종교(천주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자기자신을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자신이 두렵기도 하다. 이유는 주저 앓을까봐,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때문에 신에게 의지한다.

사변적이면서도 어눌하고 코믹한 입담으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할 일은 역시 배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론 브란도나 알파치노를 좋아한다. 그들처럼, 젊었을 때의 표정부 터 나이 들고 난 후의 개성과 이미지까지 필름에 켜켜이 새겨두고 싶다. 그는 「여인의 향기」에서 쉐한 눈에 늙은 까마귀와 같은 표정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던 알파치노의 매력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배우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 그는 극중 배역에 몰입하다, 순간 순간 깨어난다. 몰입해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배역 속으로 빠져 드는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행복은 계속 욕심내도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부린다. 작은 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으다 보면 커지고 행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는 그 기회를 위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며, 극중에서도 주인공이 될 그 날을 꿈꾼다. 그리고 이젠 그 때가 가까워졌음을 감지하고 있다. **SBS**

프로그램 엿보기 |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기획/홍성주, 연출/강선모, 민인식, 이윤민

진행/신용철, 박미선, 서상록

방송/월요일 7시 15분

정보와 재미를 움켜쥔다



정보와 재미, 여기에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사실적 깊이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이다.

여기서 약간은 생소하게 들리는 '엔포 다큐'라는 새로운 장르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Entertainment + Information + Documentary의 합성어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가미한 퓨전 형태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엔포 다큐'라는 새로운 장르를 꾸러 나가기 위한 기본 컨셉을 제작진은 '트렌드(Trend)'라 결론지었다.

21세기는 흔히 정보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누가 먼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힘이 되는가? 세상의 경향과 추세, 유행을, 다시 말해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트렌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힘을 얻는 길이다.

진행은 푸근한 인상의 신용철 아나운서와 「순풍 산부인과」의 박미선이 맡는다. 신용철 아나운서는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나운서의 장점을 십분 살려 정보 제공의 이미지를 강조한

21세기는 흔히 정보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누가 먼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보와 재미, 여기에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사실적 깊이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이다.



다. 여기에 시트콤에서는 대가족의 든든한 말팔로서, 모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재치 있는 진행자로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박미선을 영입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와 재미,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제작진들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진행자가 아닐까?

여기에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그에 버금가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고정 패널로 나선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 역은 호텔 웨이터인 전 삼미그룹 부회장 서상록 씨가 맡는다.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는 주제와 관련된 쇼킹한 사실을 보여주는 '논픽션 2000',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부와 귀', 웨이터 서상록 씨가 맛깔스럽게 전하는 돈이 되는 각종 정보 '서상록 파워 닷 컴', 그리고 막연히 사실이라 믿고 있는 명예에 탄지를 걸어 상식적인 정보를 뒤집어 생각해보는 '출동 만지 PD' 등으로 구성된다.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트렌드는 무엇인가? 한때 아이들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빵을 사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충격적인 일로 관심을 모았던 만화영화 「포켓 몬스터」, 일본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 한 해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6조 원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액과도 맞먹는 액수다. 이 작은 캐릭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술같은 힘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바람으로 지난달 16일 첫 방송에서 포켓몬스터의 정체를 밝혔고, 앞으로도 우리 힘의 정체들을 밝혀 나갈 예정이다.

사실 정보와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이 때로는 역사를 바꿀 만큼의 기회를 만들어 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다만 그 확률을 점점 좁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오락의 결합뿐만이 아닌 더 많은 효능과 전파력을 지닌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기 위해... SBS

글/ 배미라 ·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작가, 사진/ 서창식



기획/신인호, 연출/박정훈, 이광훈, 유영석
 진행/박철, 표인봉, 구성에
 방송/토요일 밤 11시 50분

성인들의 아름다운 성문화 만들기



출근을 한다.(심지어 어떤 이들은 푸른 바다와, 우리는 설악산에나 가야 마실 법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비타민 D와 칼슘이 마구 생성되는 남극의 강렬한 태양의 정기를 한 몸에 가득 받으며 페리(배)를 타고 출근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고, 일하는데 급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우리처럼 손가락이 안보이게 일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은행의 경우를 비교하면). 또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를

시 드니에서 일 년 동안 살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던가. 내 시선을 붙들어맨 기사 한 토막. '시드니가 세계에서 섹스를 가장 많이 즐기는 나라'라는 기사 한 줄(그 다음이 스웨덴...)에 전 국민의 평균 섹스 횟수가 일주일에 무려 4회가 넘는다는 설명까지. 다문 입을 한동안 닫을 수가 없었다. 이럴 수가... 그런데 어찌 이혼율이 50퍼센트나 되는고? 금금증이 생기면 해결해야 잠을 편히 자는 업보를 타고난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금금증은 심겁게도 다음날 우연히 퇴근 무렵의 조지 스트리트(도심 한복판)를 걸다가 금방 풀리고 말았다. 아하 그렇구나... 뇌리를 스친 나의 분석은 이렇다. 믿거나 말거나.

우선 이들은 아침 9시에 우리 보다 서너 배 편한 상태에서

비교하면 그들이 우리 보다 최소한 20배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간 호주 의 물가 상승률은 10년을 모두 합해 3퍼센트에다, 저질 정치인도 없고 정쟁도 매우 신사적이며, 군사적 위협도 없다.

음식도 칼로리 높은 육류와 유가공 제품을 잘 먹는다. 게다가 오후 5시면 칼 퇴근이다. 빌딩 숲 속에서 이들이 일거에 퇴근하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퇴근하기 위해 출근했나 싶을 정도로 분명 고단한 하루의 일을 마쳤을 터인데도 발걸음에 힘이 넘친다.

또한 이들은 주 5일 근무에 일 년에 40~60일간의 휴가를 즐긴다. 올해 못간 휴가는 자동으로 내년엔 적절해서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휴가를 안가면 회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은 강제이라도 휴가를 보낸다.



쇼핑 날로 정해진 목요일을 빼곤 거의 모든 상점이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집에 일찍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술집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이혼 감이다.

그럼 일찍 집에 가서 뭐 하는가?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정원을 손질하고, 취미생활을 즐긴다. 시드니에만 골프장이 100개(18홀 필드)가 넘는다. 그리고 아이들을 일찍 재운다.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은 8시면 잔다.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디저트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호주는 프랑스만큼

열심히 일하는가 말이다. 우리의 퇴근시간은 호주인들에게는 한마디로 놀랄만한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소름끼치는 일 에 가깝다. 게다가 살인적인 술 문화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희미한 성욕조차 무참히 쓰러뜨리고 만다.

불쌍한 한국인들이여! 통계에 짓눌리지 말자. 그리고 유쾌하게 토요일스페셜 「아름다운 성」을 보자. 그 안에 우리가 위로 받고 즐거워할 우리들만의 솔직한 아름다운 성이 있다. 공중파에서 처음 시도되는 성인들의 성 이야기! 토요일 밤 11시 50분. 나와서 얘기할 사람은 당당하게 신청하시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당신들의 한을 풀어드리리다.

성인들의 성을 이야기 하는 「아름다운 성」. 그 안에 우리가 위로 받고 즐거워할 우리들만의 솔직한 아름다운 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으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화에 도움을 주고 서로에 대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 국민이 포도주를 애용한다)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다 해도 밤 10다. 그러면 뭐 할 일이 남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주 한다. 만약 이래도 그냥 잔다면 이것 또한 서로에 대한 애정 부족이다. 이혼이 고려될 수 있다.

이상이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생각하게 된 '호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다. 호주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내 생각이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자. 위에서 열거한 호주의 경우와 상황이 딱 반대라고 보면 된다. 혼탁한 공기하며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긋지긋한가.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으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화에 도움을 주고 서로에 대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은 그만큼 인생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매 회마다 이런 커다란 전제가 충족되는, 그러나 교조적이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감추고 가리는 곳에 더 악취가 난다는 교훈을 잊지 않으며… SBS

글/박정훈 · 「아름다운 성」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사랑을 꿈꾸는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인 류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 일 것이다.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일요일 오전의 초특급 러브 버라이어티가 바로 「러브게임」이다.

사랑의 힘을 확률로 측정하는 '확률게임,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해서 사랑을 구하는 '러브 PR', 애인이 없는 4명의 남자들의 싱글탈출 대작전을 지켜보는 '클럽 싱글즈' 등 사랑을 꿈꾸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선이 머무는 새 프로그램이다.

확률게임, 사랑의 힘으로!

"네, 000-000 커플, 1/2 확률도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정

재환 씨의 목소리가 수영장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고,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라는 김경식 씨의 한마디가 오고갈 때 즈음, 확률게임은 절정에 달한다.

사랑의 힘을 무기로 확률게임이라는 한판승부를 벌이는 커플들. 1/2 확률부터 시작, 탈락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로의 교감(텔레파시)을 주고받으며 펼치는 숨막히는 대결. 출연한 커플들은 풀(pool)을 사이에 두고 헤어지게 된다. 한쪽은 확률도전에 실패할 경우, 물 속에 빠져야 할 운명이고 다른 한쪽은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을 선택, 자신의 파트너를 빠뜨리지 않고 지켜내야 성공한다.

'사랑' 이 가지는 절대적인 '힘' 을 믿기에 설령 확률도전에 실패하더라도 파트너의 선택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게임이라는 형식을 빌고 있지만, 출연하는 일반인이나 연예인 모두 서로의 사랑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1/2 확률통과, 1/3 확률통과... 1/5 확률통과! (수학적으로 1/5 확률을 통과했다는 것은 1/120의 확률을 통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순히 백 몇 분의 몇의 확률을 통과했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에 도전할 때마다 파트너를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를 연인으로만 규정짓지 않고 친구끼리의 우정, 부모 자식간의 애정까지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 다양한 커플들을 출연시킬 예정이다.

이제 막 출발을 알린 "확률게임, 사랑의 힘으로!". 그 끝없는 무한확률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일요일 오전의 초특급 러브 버라이어티, 「러브게임」.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률게임, 사랑의 힘으로!'와 사랑 만들기를 염원하는 남자의 '러브 PR!' 등 사랑을 꿈꾸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선이 머무는 프로그램이다.

사랑도 PR이다, 러브 PR

현대는 PR시대, 확실한 자기 PR이 아니면 여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 러브PR은 사랑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일과를 공개하는 코너이다.

출연자의 하루 일과가 VTR로 공개되면 순간 순간마다 30인의 심사단이 지지도를 O, X로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세단을 모는 장면에선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뽕 짝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면 다시 지지도가 하락하기도 한다. 물론 PR하는 남자의 얼굴은 VTR 마지막에 공개되고, 30인의 심사단 중 최소 25인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심사단 중 한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사랑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 사랑 만들기를 염원하는 남자의 자기 생활을 자신 있게 공개PR하는 러브 PR! 모든 것을 던져 사랑을 얻는 용기있는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싱글 대 탈출, 클럽 싱글즈

지구 위의 반은 남자고 지구 위의 반은 여잔데... 기리에 온통 연인들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봄날에, 아직도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해 헤매는 외로운 싱글들이 있다. 바로 이 싱글 남들의 애인 만들기 대작전이 펼쳐지는 곳이 '클럽 싱글즈'다.

애인이 없는 4명의 남자들이 함께 살면서 매주 한 명의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그녀와 커플이 되면 팔짱을 끼고 이 클럽 싱글즈를 떠날 수 있다. 물론 커플이 되지 못한 나머지 3명의 남자는 계속해서 클럽 싱글즈에 머물게 되고 떠나간 1명의 자리는 매주 다른 신청자로 채워지게 된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애인 만들기엔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클럽 싱글즈이기도 하다.

「러브게임」이 방송되기 전 클럽 싱글즈에 들어올 남자들의 공개 모집이 있었다. 예상을 초월한 막대한 신청건수에 공개면접까지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4명의 남자들의 입소로 클럽 싱글즈의 첫 테이블을 꾸었다.

비록 한 여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지내게 된 이 4남자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커플 탄생의 유무만큼이나 흥미진진하리라 기대한다.

이제 '클럽 싱글즈'라는 배는 항구를 떠났다. 한 배를 탄 남자들의 우정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과 함께 자연스러운 웃음과 함께 다가올 클럽 싱글즈!

얼마나 많은 사랑의 커플들이 탄생할지, 그리고 남아있는 싱글 남들의 도전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클럽 싱글즈의 건강한 사랑 만들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SBS**

글/김민훈 · 「러브게임」 작가, 사진/서형식



새로운 도전, 뉴스의 오락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시대, 무엇을 이야기하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형식이 없으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못한다.

이미 교양과 오락, 쇼와 다큐멘터리라는 특정 장르의 구별이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찾으려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뉴스와 오락의 화합이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뉴스. 그러나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뉴스. 그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 「뷰티풀 라이프」의 맨 처음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새 천년 새 화두, 정보 세계

기존 일요일 7시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쉽고 1회적인 웃음에 그친 반면, 「뷰티풀 라이프」에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화제의 뉴스를 심층 취재해서 정보는 물론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영어가 경쟁력, 량현량하의 작은 약속’, ‘한국 호랑이 심층취재’, ‘인간 계놈 프로젝트! 의정이 키 크기 도전’, ‘백지연의 주차단속원 체험’ 등 시사적인 소재에서





찾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장기간 기획 취재해서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하며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뷰티풀 라이프」가 추구하는 '뷰티풀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첨예한 사회 문제는 물론 훈훈한 미담이나 가십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뷰티풀 라이프」가 주목하는 아이템의 근간을 이룬다.

볼수록 도움되는 프로그램 만들기

1999년 IMF의 힘든 상황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제로 한 「좋은 세상 만들기」가 성공했다면, 2000년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는 정보와 웃음이 하나되어 시청자에게 최신 정보 뉴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다만 뉴스의 오락화라는 새로운 형식에 도전한 제작진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방송계에 또 다른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랄 뿐... **SBS**

글/ 이상훈 · 「뷰티풀 라이프」 프로듀서, 사진/ 김연식



딱딱하고 권위적인 뉴스 그러나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 그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뷰티풀 라이프」이다. 첨예한 사회 문제는 물론 훈훈한 미담이나 가십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뷰티풀 라이프」의 아이템이다.

일요일 밤의 색다른 만남



텔 레비전을 보고 난 후 잠자리에서 미소지을 수 있는 기분 좋은 프로그램, 일주일의 끝이자 시작인 일요일 밤! 이제,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이 있다.

남희석. 그가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국내 최고의 스타들과 콤비플레이어를 자랑하던 그가 왜 모험을 하려는 것일까?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의 남희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웃길려고 애쓰는 남희석이 아니다. 그는 이제 적당히 품위를 지킬 줄 알게 되었으며 적당히 웃음과 진지함 사이를 넘나들 줄 아는 사람으로 다가왔다.

천하의 남희석이 흘린 땀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은 공개방송이다. 진행자의 부담은 기존의 녹화방송보다 몇 배는 더 많다. 첫 녹화 날, 그동안 오지 않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과연, 일반인들이 남희석을 보러 올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비까지 오는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방송을 위해 앉아있어 줄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드디어 방청객 입장시간. 끝이 없이 들어오는 그들에게 남희석은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했다. 녹

국내 최고의 스타들과 콤비플레이어를 자랑하던 남희석. 그가 모험을 시작했다. 일주일의 끝이자 시작인 일요일 밤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에서 그는 웃음과 진지함 사이를 넘나들며 편안한 밤을 제공한다.



화는 생방송처럼 진행되고 남회석이 흘린 땀은 무대를 적실 정도였다. 옛날부터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천하의 남회석이 이렇게 긴장하다니...'

과연, 색다른가?

오프닝은 스타들의 입술로 시작한다. 이름하여 립프닝! 미녀 스타들의 소개를 받고 진행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색다른 밴드가 있다.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손무현의 색다른 밴드. 그들의 음악으로 우리는 금세 편안해진다.

첫번째 코너 '테마토크 남자는 왜?'. 스타와 함께 한다는 점은 별로 색다른 게 없지만 그들의 신변잡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10여 명의 일반인 여성으로 구성된 '세이 클럽'의 예리하고도 당돌한 질문 세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왜?'에서는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의 행동, 말투, 버릇 등을 얘기한다. 이때 남회석은 여성의 편에서 궁금증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기도 한다.

두 번째 코너는 '색다른 송'. 콘서트의 자연스러움을 만끽 할 수 있는 코너이다. 입담과 노래담을 겸비한 가수 박상민의 주도 하에 남회석과 초대 손님들이 가사를 만든다. 방청객이 직접 참여해 즉흥적으로 색다른 노래를 만든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러브레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이가 멀어진 친구에게 마음속의 사랑을 전한다. 부부, 연인, 친구, 그들은 「남회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으로 러브레터를 보낸다. 시인이 채택된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의 언약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보낸 것이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20~30명의 여자친구들이 내 남자친구가 보낸 것이 확실하다며 무대에 올라갔다가 사연을 읽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연이 결국 한 사람으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또 색다른 가수의 모습도 만난다. 초대가수는 연인을 위한 사랑의 축가를 부른다.

「남회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크게 웃어버리고 금방 잊혀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을 잊고 볼 수 있는, 잠자리 이불 속에서도 미소지으며 잠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리라 믿는다. **SBS**

「남회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크게 웃어버리고 금방 잊혀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을 잊고 볼 수 있는, 잠자리 이불 속에서도 미소지으며 잠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리라 믿는다. **SBS**



글/김창희 · 「남회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작가, 사진/서향식



“I'll be back”으로 마무리했던 100회. 그리고 1년 반만에 다시 시작한 101회. 그 뒤로 어느덧 130회... 만 4년이 넘었고 햇수로 5년을 「이홍렬 쇼」와 함께 산 셈이다. 그 동안 진행자 이홍렬 씨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우리는 IMF를 겪으며 금도 모아보고, 정권도 바꾸고, 그 사이 새 천년이 됐고, 세상엔 인터넷, 디지털, 코스닥, 벤처, 테크노... 없었던 말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결혼해 가정을 가졌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머리 속에는 담배연기 뿌연 아이디어 회의와 밤을 새던 1평 짜리 편집실의 이미지뿐이다. 하지만 출연자만해도 줄잡아 300명 이상이고 녹화 테이프가 캐비닛 두 개에 가득이니 기억의 구석구석을 뒤져본다.

첫번째 조각. 원래 「이홍렬 쇼」의 진행자는 기획 단계에서 2명이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K양. 보조 진행 예정자였던 그녀는 첫 녹화 이틀 전에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다. 결국 그 핑크가 오늘날 「이홍렬 쇼」의 모습을 만든 셈이었다.

그녀를 생각하면 정말 팔자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조각. 97년 5월 18일. 당시

화려한 역사보다 일상이길 바라며...

「이홍렬쇼」, 그 못다한 이야기

「별은 내 가슴에」의 강민, 안재욱이 녹화 3일 전에 출연 불가를 통보해 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안재욱은 출연한다는 것을 몰랐고,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안재욱과 나는 서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MBC 분장실에서 만났다. 당분간 텔레비전 출연을 않겠다고 공표한 안재욱은 「이홍렬 쇼」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를 소재로 모든 녹화 준비를 마친 나는 다른 출연자로 대체할 타이밍을 놓친 상태였다. 대중과의 약속을 내세운 그의 거부는 완강했고, 나는 평소의 친분을 앞세워 부탁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결국 12시간에 걸친 부탁과 설득 끝에 출연약속을 받아냈고, 나

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과감치가 된 몸으로 불꺼진 사무실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잭팟 파티. 그 날은 내 생일이었다. 스태프들에게 감격했고 안재욱에게 고맙다.

세 번째 조각. 96년 여름. '진행자 이홍렬 과로로 쓰러져 마비 증세 보인다'. 녹화 날이었다. 왜 큰 사건은 항상 녹화 날이거나 그 전날일까. 결국 진행자는 입원했고 이경실 씨의 도움으로 방송은 핑크를 면했다. 이침에 이성미, 이경실 두 분께 다시 감사를 드린다. 준비가 미숙했던 첫 회에 손님으로 나와 큰 도움을 주었고, 100회 맨 아쉬움을 함께 나눴고, 몇 일 전엔 특집 유부녀 클럽을 이끌기도 했으니 「이홍렬 쇼」의 숨은 식구인 셈이다. 아무튼 그때의 사건으로 이홍렬 씨는 몸 관리에 각별해졌다.

네 번째 조각. 성형 개그맨 장용의 출현. 수술전의 모습을 장난삼아 찍어 두자는 진행자의 제안으로 조명도 없이 찍은 인터뷰 장면이 수술 전후의 비교화면으로 소개되어 한 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오랜 팀웍이다 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뜻을 알 때가 있다. '장용 에피소드'는 공식적인 기획 회의 없이 진행자와 제작진의 감각 투합으로 만들어 낸 우연에 가까운 아이템이

었다. 또 한번 팔자란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다섯번째 조각. 유부 클럽의 핵 폭탄 권오중. 코너에 꼭 필요한 캐릭터였지만 슬

직히 섭외 리스트의 맨 마지막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한번도 일반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없었으며, 아직은 총각 이미지를 갖고 싶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출연하겠다고 녹화장에 나타났다. 물론 「순풍 산부인과」에 함께 출연중인 표인봉과 섭외 작가 배성민 등 주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의 결과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오중은 진행자 이홍렬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출연 결심에 큰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다. 괜히 지레짐작으로 속만 태운 꼴이 됐다. 그는 결국 유부 클럽의 핵 폭탄이란 별명답게 200퍼센트 이상 제 몫을 하고 있으며 신세대 유부남의 대표 자리를 꿰찼다. 이침에 그들의 소중한 사랑을 공개한 권오중, 엄윤경 부부에게 또 한번 감사를 드린다.

기억 속에 흩어져 있는 에피소드의 조각들이 달팽이의 촉수처럼 숨어버리고 머리 속엔 몇 시간 전까지 꿈꿨던 프로그램 개편 회의 장면이 떠오른다. 옥상에서 던진 빈 병이 머리에 떨어지면 '역사'고 지나간 자리에 떨어지면 '일상' 이란다. 이제 200회를 향하는 「이홍렬 쇼」는 그런 '역사' 이기 보다는 '일상' 이고 싶다. 그래서 화려하게 풀어놓을 뒷 얘기는 적어도 늘 옆에 있는 국민의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SBS**

글/김태성 · 「이홍렬 쇼」 프로듀서

「I'll be back」을 선언하며 100회를 마무리했던 「이홍렬 쇼」가 어느덧 130회를 넘어섰다. 만 4년이 넘었고 헛수로 5년을 채운 「이홍렬 쇼」는 그 동안 술한 에피소드와 뒷얘기를 남기며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제 200회를 향하는 「이홍렬 쇼」는 화려하게 풀어놓을 뒷 얘기는 적어도 늘 곁에 있는 국민의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상쾌한 아침을 전한다

MORNING

「출발! 모닝와이드」 1, 2부의 새 진행자 이병희 아나운서. 2000년 봄 개편을 통해 뉴스를 진행하게 된 그녀는 SBS 뉴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인 전달력 높은 깔끔한 멘트 처리는 물론 부드럽고, 편하며 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그녀가 SBS의 첫 뉴스 프로그램인 「출발! 모닝와이드」 진행자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 또한 그녀만의 장점이 프로그램의 특징과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희 아나운서가 SBS에 입사한 것은 지난 1998년 11월. 이제 막 새내기라는 인칭 대명사를 면한 아나운서이다. 「출발! 모닝와이드」 진행을 맡기 전 그녀는 유아 프로그램 「춤추는 젤라비」의 젤리요정 역에서부터, FM 「사운드 오브 뮤직」의 진행, 그리고 리포터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그녀는 「출발! 모닝와이드」 얘기를 하는 내내 얼굴빛이 상기되었다. “큰 일을 맡아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도 크지만 입사할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게 되어 즐겁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각종 뉴스와 시사 문제 등을 전달하는 코너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이해와 전달력을 기르는데 힘쓰고, 밝은 성격을 잘 살려 시청자들에게 상쾌한 아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소 비중이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정성을 다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방송을 사랑하는 방송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함과 열정이 배어있는 얼굴로 방송인 상에 대해 당당히 말하는 이병희 아나운서다.

그녀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다른 스태프들보다 출근 시간이 조금 빠르다. 대본을 읽고, 인터넷에서 세계 뉴스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오후 1시는 이병희 아나운서의 퇴근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퇴근한다. 그러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각종 정보를 정리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익히는데 활용한다.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도 빼놓지 않는다. 이 모두가 시청자들과 보다 편안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길 바라면서... **SBS**

글/김현경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WID

이병희 아나운서



‘라 오스’, 머나먼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중의 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에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나라.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토록 순박한 사람들과 원시 자연의 풍경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니...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도착한 것은 2월 29일, 다행스럽게도 그때가 전기이기 때문에 차가 지방으로 갈 수 있었다. 도대체 우기 때는 어떤 길이 되기에...?

제작진이 처음 간 길은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로를 일부러 파놓았는지 너무 울퉁불퉁해서 시속 20킬로미터 이상만 달리면 차안은 소음과 진동으로 온통 이수라장으로 변하고, 갑자기 통째로 쓰러진 나무가 도로 전체를 막고 있어 길도 아닌 옆길로 우회하기를 수십 차례. 이렇게 700킬로미터를 가는데 30시간 이상이 걸렸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은 아따뿌라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풍경은 흡사 작은 아프리카를 연상시켰다.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뻘뻘한 원시림,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정말 오지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곳이 바로 얼마 전 운명을 달리한 텔런트 김성찬 씨가 촬영을 하러 왔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이곳 군청 공무원을 통해 들었다. 바로 그때 ‘아, 오늘이 말라리아 약을 먹는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물도 없이 말라리아 알약을 꿀꺽 삼켰다.

희귀한 풍습을 지닌 다양한 종족

아따뿌라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종족은 오이족이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귀에 구멍을 뚫고 주먹만한 상아를 끼우고 다닌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플까?’ 걱정스러



운 표정으로 우리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들은 계속 웃기만 한다.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오이 종족들은 우리를 보면 늘

웃는다. 그것이 마치 인사인 것처럼...

오이족의 가장 특이한 풍습은 신을 섬기고 최고의 미인이 되기 위해 이를 갈아 반드시 수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돌에 갈 때 들리는 참을 수 없는 소리, 고통을 참는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는 없어 보였다. 더구나 덧니가 난 사람의 이를 가는 고통이란? 그들은 이를 갈다가 기절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물을 뿌려 깨워서라도 다시 이를 간다고 한다. 정말 이를 가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런 희귀한 풍습을 지닌 종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대나무 통에 밥을 하고, 손님을 위해 직접 술을 만들고, 소박한 타악기로 흥을 돋우고, 주민들 모두 모여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라오스는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원시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종족들도 있다고 한다. 키가 1미터도 되지 않는 난쟁이 종족,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고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종족, 곰, 호랑이, 코끼리의 머리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종족 등 뻘뻘한 일정 때문에 이런 종족들의 흔적을 좇을 엄

제작기 | 「출발 모닝와이드」-새 천년 대륙 평정, 동남아 편

세상에 아직 이런 나라가 있다니...

두를 못 내고 돌아서야만 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다. 언젠가 다시 오리라.

태국에서 뱀으로 산다는 것은?

관광대국, 여행자의 천국이라는 태국을 기대하며 국경을 막 넘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긴 혀를 쏙 내밀고 곳곳에서 있는 코브라 상이었다. 태국인에게 뱀은 어떤 존재이기 저렇게 큰 동상이 국경지역에 우뚝 서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이산지역의 한 마을인데, 이곳은 우리가 집집마다 개를 키우듯이 집집마다 뱀을 키우고 있었다. 그것도 코브라를 비롯해 맹독성을 지닌 뱀들이었다.

이 뱀들은 그럴까한 집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직접 목욕도 시켜주고, 쥐, 닭, 심지어 작은 뱀을 먹이로 주기도 했다. 물론, 성격이 포악해 특별히 안전장치를 해 두고 관리하는 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뱀들은 주인에게는 물론 그 집을 찾는 손님인 우리에게 적대감을 표하지 않았고, 쓰다듬어 볼 수도 있었다.

태국에 있어 뱀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웃도는 최대사망사고의 주범이다. 특히, 코브라라 총칭되는 독사는 수면독



을 가지고 있어, 물리면 통증도 없이 잠을 자게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태국 정부가 이런 뱀을 소탕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코브라를 죽이거나 해를 가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어지간하면 뱀을 건



드리지 않고 있으며, 고산지역의 종족들 중에는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태국인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끼리 싸움을 시킨다. 그 이유는 열광을 하고 돈을 걸기 위해서다. 개싸움,

소싸움, 닭싸움, 하물며 물고기와 벼룩, 이까지 싸움을 붙이고 참다못해 사람까지 링에 올려 킥복싱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싸움을 하게 한다.

방콕의 주말시장에서는 물고기가 싸우는 진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중들이 자신이 돈을 건 물고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다만, 다른 곳과 다른 점이라면 조용하게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면서 3~4시간 동안이나 꼼짝도 않고 승부가 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 물고기는 선천적으로 싸우는 습관을 가진 종인데, 이 습관을 발달시켜 훌륭한 투어(鬪漁)로 만든다는 것이다.

태국과 라오스는 아직도 우리의 눈에는 신비한 나라일 수 밖에 없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발전해 간다. 지하수로 소금을 만드는 현장, 날카로운 칼로 아무리 절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 원숭이가 시내를 장악하고 인간을 괴롭혀도 곳곳이 참으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 등... 동남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자수와 백사장 옥빛 파도가 넘실대는 핑크빛 낭만만 있는 곳이 아니다. SBS

글/이덕건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듀서

동남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자수와 백사장 옥빛 파도가 넘실대는 핑크빛 낭만만 있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원시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종족들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화려한 풍습이란 보지 않고는 믿을 수조차 없다. 우리 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세상, 그 넓은 필드를 향한 꿈과 야망

SBS 골프채널 광고팀 김용민

JS

골프는 그저 일부 상류계층이 누리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대중들에게는 그저 사치에 지나지 않는 분야였다. 그러나 먼 타국 땅으로부터 세계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린 박세리의 승전보는 전 국민을 골프에 열광하게 했고,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집 문을 나서면 골프를 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골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 오래 전부터 골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SBS 골프채널 광고팀의 김용민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식과 열정으로 골프업계 업그레이드

골프채널에서의 그의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골프에 관한 방송, 특히 광고와 협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 협찬, 광고 마케팅, 골프 용품사들의 코디네이션까지 SBS 골프채널 곳곳에는 그의 열정이 배어 있다.

"우리 채널은 골프를 아는 사람들이 주요 시청자라는 점에서 다른 케이블 채널과 차별화 됩니다. 따라서 시청률을 높이기보다는 전문 채널로서 주요 시청자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광고를 유치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는 것이죠. 또한 광고주들에게 주요 시청자층을 정확하게 분석해 제시를 하는 것도 저의 일 중 하나입니다."

광고 마케팅 이외에도 그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골프 업체의 코디네이션이다.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기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분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비해 마케팅 이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채널의 노하우와 채널 망을 이용해 바로 이같은 중소기업체들의 약점을 보완 해주는 일 역시 그의 중요한 업무이며 한편으로는 골프업계의 업그레이드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는 당당한 전문가

당초 MY-TV 라는 교육전문 채널이 지난해 골프 채널로 바뀌면서 이 팀에 합류한 그는 사실 골프와는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었다. 지난 94년 SBS 프로덕션에서 제

작한 「SBS 영상골프뉴스」 창간 멤버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약 7년 동안 골프 전문잡지인 「골프 다이제스트」에 머물면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런 나름의 장점 덕에 그는 골프채널 측으로부터 전격적으로 스카웃이 되었고 팀의 주축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골프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사람들을 만나서도 주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세리 선수의 활약으로 골프가 대중 속에 대단히 넓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제는 골프를 많이 즐기지만 사람들 눈에는 특권 계층들만 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고보면 골프처럼 좋은 스포츠도 없습니다."

골프 전문가답게 그는 골프가 다른 스포츠 보다 월등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우선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골프가 매력적인 스포츠로 느껴지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예의바른 운동이기 때문이다.

골프 종합 컨설팅회사를 꿈꾸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그는 골프의 대중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가 SBS 골프채널에 합류할 때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는 것도 골프에 깊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미 골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우리 골프계에 나름대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광고와 홍보 등 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은 프로모션과 같은 이벤트입니다. 더 많은 일반인들이 골프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가를 하는 것이죠. 또 기획만 잘 한다면 마케팅적으로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골프는 다른 모든 스포츠와 동급이라고 단정지을 만큼 골프를 한 단계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는 이 분야에 더 많은 경력이 쌓이고 나면 매니지먼트, 프로모션, 마케팅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골프 종합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끝없이 넓은 필드 위에서 있다. 그 누구와의 승부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SBS**

글/김정덕·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SBS i, 국내최초 총선 전자투표 실시

SBS i는 지난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SBS와 P&P컨설팅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전자투표는 전국 8만 9,339명의 네티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모의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고 투·개표 상황 속보를 즉시 받음은 물론, SBS의 선거 속보 방송 등을 함께 봄으로써 당선여부에 대한 예측을 투표 마감시간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20세 이상 네티즌이 참여한 이번 투표결과는, 서울 지역의 네티즌이 3만 111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했다. 또, 가장 저조했던 지역은 제주로 754명이 참여했고, 우려했던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참여는 없었다.

전자투표와 실제 투표간 오차는 총 227개 선거구 중 42개의 오차지역을 보였을 뿐, 185개 지역에서 네티즌의 전자투표결과와 실제 개표결과가 81.4퍼센트 일치했다.

한편, SBS i는 이번 전자투표결과에 대해 전자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총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참여가 가능토록 해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능한 선거기반 환경을 조성, 국민의 자연스러운 정치참여 및 투표를 상층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Web-Casting서비스, 성원 속에 순항 중

SBS i의 인터넷 방송이 네티즌의 성원에 힘입어 인기리에 방송 중이다. 지난 4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i의 웹캐스팅은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인터넷 방송의 선두기업다운 인터넷 방송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5시간 분의 인터넷 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우선 1차적으로 6개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들은 CH1이 드라마, 영화 채널, CH2는 뮤직 채널, CH3은 연예, 오락 채널, CH4는 교양, 정보 채널, CH5는 스포츠, 레저 채널, CH6은 이벤트, 특집 채널로 편성되었다.

인터넷 방송은 4월과 5월에 걸쳐 두 달간 시험방송을 실

시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보강과 일부 편성의 조정, 그리고 출연자의 추가섭외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은 음악, 영화, 드라마, 스포츠, 스페셜(교육, 게임, 뉴스, 스타나이트, 다큐멘터리 등) 등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인터넷 통한 실시간 스포츠 중계

SBS i는 4월 26일 18시 40분부터 한일 축구경기전을 '인터넷 라이브 멀티캐스팅'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방송 형식이었던 이 중계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무제한적 채널 공급망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방송으로 공중과 방송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방송해 축구경기의 긴장감과 웅원전 등 축구장의 이모저모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텔레비전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는 축구경기가 예상 밖으로 신선했다는 네티즌의 격려글이 올라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두개의 창을 통해 텔레비전과 같이 축구경기 중계와 함께 경기장 내의 다양한 이벤트와 응원모습, 경기장 주변 상황 등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신선했다는 글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SBS i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sbs.co.kr에는 동시 접속자 14만 명을 기록했다.

Buy6.com 쇼핑물, 가정의 달 특집 이벤트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엔터테인먼트 전문쇼핑몰 Buy6이 "선물,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계속되는 5월 한 달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가족사랑 삼행시 짓기, Buy6 추천선물 상품제안전 등 각종 기념일 선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상품을 제안해 주는 선물 이벤트이다.

구매고객에게 최고 10개월 무이자 할부혜택과 푸짐한 경품도 마련해 두고 있다.

또, SBS웨딩클럽 사이트도 준비해 두고 있는데, 결혼 시즌을 맞아 예비 부부들의 취향에 꼭 맞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웨딩 상품,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예비 부부 네티즌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물품구매는 www.buy6.com 참조.



표준FM 103.5MHz
AM 792KHz
POWER FM 107.7MHz

SBS라디오가 새 천년 새 봄과 함께 새롭게 단장되었다.
표준FM은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김민희의 나는 1035다」, 「Music Topia」, 「꽝꽝! 노래는 트롯트」 등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세상속으로」의 진행자는 손희재에서 김찬식으로,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진행자는 류시원에서 고수로 각각 교체되었다.
파워FM은 「유영석의 뮤직사이트」를 신설, 인터넷과 연결해 방송한다.
특히 이번 개편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원입니다」는 전국의 애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색색의 꽃들이 어지러이 수놓는 봄날을 맞아 새 모습으로 개편된 SBS라디오세상, 언제나 활기롭고 신나는 세상이 바로 그곳에 있다. 사진/김연식

음악과 유머의 절묘한 조화

그 동안 정보 위주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2시대에 정통 연예 오락 프로그램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승부」이다. 제목에서 느끼듯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홍기훈의 개그맨 특유의 순발력을 갖춘 입심과 모든 연령층에서 호감도 높은 안문숙의 개그맨 뺨치는 유머 감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승부」는 최신 연예 뉴스와 홍기훈과 안문숙의 캐릭터를 살린 콩트, '숙이랑 훈이랑'으로 재미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또 개그맨 윤정수가 리서치 전문 회사에 의뢰한 시민 앙케트를 소개하는 '윤정수의 멘데이 리서치', 연예기자 출신 방송인 강정식이 신문에 나지 않은 연예계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강정식의 연예-X파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허준이라는 평을 듣는 명

의 신재용이 연예인의 관상과 체질을 분석하고 그와 비슷한 체질을 가진 청취자들에게 심도 높은 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동시에 재미를 줄 '걸을 알면 속이 보여요'와 스타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통해 스타를 재해석하는 '베스트 프렌드' 등도 준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금요일 3부에 소개될 'Long time No see'를 통해 추억 속의 스타들의 근황과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는 최신 곡부터 70~80년대 추억의 가요까지 시공을 초월한 음악으로 선곡된다. 발라드에서 포크송, 트로트, 록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방송에서 소외돼 가는 30, 40대 청취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SBS**

글/이은경 ·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작가



‘김민선의 나는 1035다... 나는 일공삼오다...’ 굳이 한참 유행하고 있는 광고카피를 들먹이지 않아도 뭔가 있을 것 같다. 신세대인척 하는 40대 아저씨라면 ‘주과수가 103.5니까 하겠고 DDR정도는 해봤다고 큰소리 치는 30대라면 ‘10살에서 35살까지를 위한 방송!’ 하며 자신의 감각을 자랑할거다. 하지만 이런 의미만으로 「나는 1035다」를 해석할 순 없다. ‘일공삼오다’는 ‘10대를 사모하는’ 그것도 ‘열렬히 사모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SBS가 봄 개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내놓는 10대들의 ‘열삼오’ (열렬히 사모하는) 세상 「김민선의 나는 1035다」는 21세기를 이끌 10대들을 위한 10대들의 방송이다.

진행자 김민선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 명랑 만화 주인공처럼 개구쟁이 모습에서부터 각종 CF와 시트콤에서 보여지는 청순함과 짝짝함, 그리고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호기심 많은 여고생의 이미지까지. 그야말로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셈이다.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녀의 감각은 검증된 상태. 차세대 라디오계의 별로 떠오를 준비작업은 이미 마친 셈이다.

「김민선의 나는 1035다」는 N세대를 대상으로 ‘종합 포탈 골뱅이 라디오’를 표방한다. 10대들의 음악, 재미있는 이야기, 풋풋한 웃음, 성숙한 감동, 원하는 건 뭐든지 ‘일공삼오’에 다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어낸다 에서 뜻을 펼칠 수 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나는 고민이 없다’를 들으면 된다. 연예인들과 함께 풀어보는 ‘골뱅이 잉글리쉬’

에선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꿈나무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한다. 매일 밤 1시간 30분이 다채로운 내용으로 설 틈이 없다.

다부진 모습의 김민선. 친구가 되어 10대를 열렬히 사모해버릴 기운이 그녀의 눈에 역력하다. 자유롭게, 재미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로잡아버릴 밤 시간이 되었다. 자, 「열삼오」 이제 시작이다. 쿵! ‘나는 일공삼오다...’ **SBS**

글/윤지향 · 「김민선의 나는 1035다」, 프로듀서



10대를 사랑하는 모임! 1035

「김민선의 나는 1035다」

기획/박동주, 연출/윤지향, 진행/김민선, 매일 밤 8시 30분 방송

오 후 4시~6시 사이, 낮 시간 중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다. 직업으로, 취미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 시각, 음악이 함께라면, 딱딱하고 힘겨운 업무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뮤직사이트」, 그래서 타이틀을 음악이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이란 뜻으로 정했다.

오후 시간대는 밤 시간과는 달리, 청취자들의 귀를 두 시간 내내 붙잡아 두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 지 모른다. 좋은 노래가 나와서 들을라치면 상사가 부르고, 좋은 글귀가 나

와 메모지 귀퉁이에라도 적을라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오니까. 하지만, 진행자 유영석은 금세 달아오르고, 또 사라져버리는 요즘 음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나긋하지만 힘을 가할 수 없는 울림처럼 방송을 이끌 것이다.

「뮤직사이트」는 이름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M타존(인터넷상의 뮤직 사이트 회원들)과 즉석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그리고, 팩스사연은 물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 엽서와 편지 사연 또한 「뮤직사이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다.

우선, 1부의 '매일, 메~일 기다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해프닝과 실수담들을 중심으로 엮어진다. 2부에 진행되는 'Back to The Music'은 명파송 한 곡을 음악적 시대상과 뮤지션의 뒷 얘기까지 전하고, '누구세요?' 코너는 ARS 전화참여(Tel:786-2585)로 연예인이나 청취자들의 요즘 사는 이야기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풀어내고 있다.

요일별 코너를 보면 월요일엔 변화무쌍한 코너로 긴장을 유발시키고, 화요일과 금요일엔 Music은 사연을 신고로 청취자들의 ARS 음악신청을 비롯해 갖가지 사연이 담긴 신청 곡을 전하는 시간이다. 수요일엔 'I Plus Music' CD 한 장에 숨어있는 타이틀곡이 아닌, 곡들을 모아서 소개한다. 목요일엔 짝사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맺어주는 'Only U' 등을 마련한다.

음악이 있는 한, 그리고, 진행자 유영석이 진행하는 한, 인터넷도 얼마든지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SBS**

글/김경희 ·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작가, 사진/김연식



내 집같은 편안함이 있다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기획/전윤표, 연출/이진규, 진행/유영석, 매일 낮 4시 방송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복직 거리는 거리를 지나 동네에 접어들어, 문 앞에 까지 왔을 때, 이미 숨이 턱에까지 차있다. 이때 들리는 목소리, "지킬 건 지켜야지".

과연 그 남자가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 이제 그 해답을 매일 밤 10시 SBS 표준 FM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들어 볼 수 있게 됐다. 모 광고에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던 고수가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새로운 진행자가 되었다.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은 10대와 20대를 주 청취층으로 하고 있다. 청취자들이 전화로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터보의 '인정사정 1분만 본다', 모든 것에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윤종신, 고수의 비법 전수',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는 FLY TO THE SKY의 '지킬 건 지켜야지',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 추억을 떠올려보는 윈타임의 'That time' 등 많은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다.

고수, 조금은 생소한 이름일지 모른다. 78년 생인 그는 스톱의 모델을 거쳐, 98년 포지션이 노래한 「편지」의 뮤직비디오에서 처음 얼굴을 비쳤다. 그 후에 시트콤 「점프」와 「눈

모 광고에서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며 여자 친구의 손을 잡고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던 고수가 10대와 20대를 주 청취층으로 하고 있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새 진행자가 되었다. 그가 들려줄 젊음에 귀를 기울여 보자.



으로 말해요」 등의 드라마, 그리고 이현도의 「폭풍」, 김장훈의 「슬픈 선물」 등 여러 가수의 뮤직 비디오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운동과 오락, 향수 모으기가 취미인 그의 특기는 태권도이며 공인 2단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감미로운 발라드를 좋아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고수, 그는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난 할 수 있다'는 생활 신조를 잊지 않는다.

자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조용함과 영똥함의 공존'이라고 말하는 그가 과연 매일 밤 10시에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 **SBS**

TV

MON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55 짱아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TUE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55 짱아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WED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55 짱아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SBS

CHANNEL 6 2000년 5월 1일 현재

PM

4:00 마법의 섬 락도 락도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행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짱구는 못말려
6:15 에가레인저
6:45 행진
7:15 오피스 다크 야는 것이 힘이다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일일드라마 사랑의 전설
10:55 이홍렬 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골프

PM

4:00 마법의 섬 락도 락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짱구는 못말려
6:15 에가레인저
6:45 행진
7:15 세계가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일일드라마 사랑의 전설
10:55 오늘과 내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PM

4:00 마법의 섬 락도 락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빅토리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특별 기획 불꽃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스포츠는 SBS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골프,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세계 속에 스포츠 감각임을 인정 받았고, SBS는 이같은 소식을 알뜰하게 전해왔다. SBS는 볼 개편을 맞아 시드니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주요 경기를 보다 생생하게 시청자에게 전달 하기 위해 스포츠 뉴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오늘의 스포츠』

연출/신중섭, 진행/염용석
월~금 저녁 8시 40분 방송

염용석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선보이는 『오늘이

스포츠』는 당일 스포츠 경기 결과와 세계 각지의 스포츠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다.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 등의 관심사와 속도 위주로 준비된 스포츠 뉴스를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색적인 진행으로 선보인다. 또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완벽한 대비책 등을 고집 코너로 설정했다.

『SBS 스포츠 스페셜』

연출/윤근필, 진행/윤지영
화~목 밤 12시 35분 방송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요일마다 특징있게 종합 구성해 윤지영 아나운서가 흥미

있고 박진감 넘치게 전달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프로 야구를 중심으로 화제의 인물, 경기 하이라이트, 스코어 보드 등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수요일은 2002 월드컵을 주제로, 목요일은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에어로빅 등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등 요일별로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새 어린이 프로그램

『마법의 섬 락도 락도』

연출/노정현, 홍성무, 제작/SBS프로덕션
월~금 오후 4시 방송

THU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신고,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신고,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11:55 짱이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가족

FRI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신고,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신고,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금요 컬처클럽
11:55 짱이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가족

SAT

AM

- 6:00 토요일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토요일 스타클럽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SUN

AM

- 6:00 일요일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00 오늘과 내일
8:50 일요일침드라마 좋아 좋아
9:50 러브게임
10:50 좋은 친구들



PM

- 4:00 마법의 성 띠또 띠또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일렉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빅토리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답신은 누구시갈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특별 기획 불꽃
10:55 생방송 한림의 TV연예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PM

- 4:00 출구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일렉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꾸러기 발명왕
6:15 카드캡터 체리
6:45 행진
7:15 이광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답신은 누구시갈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쁜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AM

- 00:3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PM

-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0 SBS 뉴스
4:50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5:40 기쁜 우리 토요일
6:50 사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덕이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토요일 스페셜 아름다운 성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PM

- 12:00 SBS 뉴스
12:10 집중! 무비 월드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0 SBS 뉴스
4: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5:40 호기심 천국
6:50 뷰티풀 라이프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덕이
9:50 일일드라마 케이스트
10:50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AM

- 00:00 SBS 나이트라인
00:10 SBS 사내마 2000

전문 유아용 오락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순수 국산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마법의 성 띠또띠또」는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



들기를 배워보는 「띠또띠또 활하고 놀까」와 해외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선보이는 「마법의 문」 그리고 마음씨 착한 캐릭터와 모험을 떠나는 「띠또 띠또 탐험대」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짱이와 깨모」

연출/김성환, 월~금 오전 11시 55분 방송

지난 97년 대한민국 영상만화 대상에서 교육, 어린이부문 우수상 을 수상한 「짱이와 깨모」가 새 만화 시리즈로 방송된다.

금강기획과 게이브 미디어가 공동기획 제작한 이 만화영화는 삼살개 모습으로 변장한 외계인의 아이기를 다룬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다. 디지털 애



니메이션에 의한 수준 높은 영상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동식을 이야기, 우주의 신비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다.

M
F

표준

FM 103.5MHz
AM 792KHzS
B
S

CHANNEL 6 2000년 5월 1일 현재

MON - SAT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굿모닝 일본어
- 6:30 봉두원의 SBS 전담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원의 SBS 전담대
- 8:30 노상태의 경제레이더
- 8:40 새 천년 명에게 듣는다
- 8:55 공항정보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속·배기원입니다
- 11:05 김찬식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민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상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본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간비행
- 1:00 Music Topia
- 4:00 퐁퐁! 노래는 트롯트

월~토요일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SUN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음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일본어 첫걸음
- 8: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속·배기원입니다
- 11:05 김찬식의 세상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민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상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본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간비행
- 1:00 Music Topia
- 4:00 퐁퐁! 노래는 트롯트



SBS, 미 유스턴 페스티벌서 수상

「생명의 기적」 금상,
「아들이 너는 아느냐」 은상

지난달 14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유스턴 페스티벌(Worldfest-Houston)에서 SBS가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정훈 프로듀서가 연출한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이 금상을, 창사특집 드라마로 제작·방송되었던 권영범 프로듀서의 「아들이 너는 아느냐」가 은상을 차지했다.

「생명의 기적」은 연초에 방송되면서 올바른 출산문화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며 국내 최초로 수중분만 전 과정을 소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아들이 너는 아느냐」는 뇌



사 편정을 받은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장기이식을 허락하는 가족의 슬픔과 아름다운 삶을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장

기아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유서깊은 텔레비전 전문 페스티벌인 유스턴 페스티벌에서 SBS는 그동안 95년, 「공옥진」이 금상을, 96년, 「공방」이 금상 그리고 지난해에는 70분 드라마 「집에 가는 길」이 금상, 「그것이 알고 싶다 - 국군포로 장우현, 50일간 의 복한 탈출기」권이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SBS-중앙일보 영화문학상」 수상작 선정
「461 해변대로」, 「씨를 뿌린」 공동 당선

SBS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2000년 SBS-중앙일보 영화문학상」 공모에서 「461 해변대로」와 「씨를 뿌린」이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31일

MON - SAT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권영일의 파워 앙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새내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송현이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SUN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권영일의 파워 앙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새내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송현이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ME
FM
POWER
107.7MHz

S
B
S



까지 총 450여 편의 시나리오가 공모되어 이중 12편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친 「461 해변대로」와 「씨클 클럽」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461 해변대로」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면서 이뤄지는 운명적인 사랑을 느슨한 구조 속에 미묘한 터치로 형성화한 작품. 환타스틱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환상적 색감과 뛰어난 캐릭터, 사랑에 대한 상상이 연상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씨클 클럽」은 광주사태에서 출발한 긴 세월의 복수극을 형사 느와르 풍으로 단장한 작품으로, 사회성이 가미된 형사 액션물로 대중성과 오락성이 풍부해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2회 짝을 맞이하는 '2000년 SBS-중앙일보 영화문학상'은 실제적인 영화 제작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공모한다는 점에서 타 시나리오 공모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선정된 작품엔 총 3000만 원이 수여된다.

SBS 강원 산불피해 돕기 모금 ARS 모금과 특별생방송으로 재원 도와

SBS는 지난달 7일부터 사흘간 계속되었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재황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강원도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자 지난달 14일부터 700 ARS 전

화모금 및 '성금집수'를 시작했다.

또한 SBS는 지난달 21일 산불피해돕기 특별생방송 「희망을 보냅니다」를 마련해 낮 12시 5분부터 방송해 전국의 온정을 모았다. 3시간 안에 걸쳐 방송된 생방송 「희망을 보냅니다」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국에 전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했다.

지난달 있었던 산불은 강원도 영동지역 고성, 삼척, 강릉, 동해를 오르내리며 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냈다. 이 산불로 약 1만 3,000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되고, 송이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송이 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더스 데이

원제/FATHER'S DAY

감독/아이반 라이트만

주연/빌리 크리스탈, 로빈 윌리엄스, 나스타사 키스키

방송/5월 5일 · 담당PD/백숙헌

변호사인 잭에게 어느 날 17년 전 헤어진 애인 콜렛이 찾아 온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 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콜렛이 잭을 찾아 온 이유는 바로 가솔한 아들 스콧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부인인 캐리와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는 잭은 16세의 스콧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한다. 잭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콜렛은 그 무렵에 사귀었던 또 한 명의 남자 데일을 찾아가고, 잭과 달리 모든 면에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해 늘 자살을 꿈꾸고 있던 데일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죽지 스콧을 찾아 나서는데...



오스틴 파워

원제/AUSTIN POWERS: THE SPY WHO SHAGGED ME

감독/제이 로치

주연/마이클 아이머스, 헤더 그레이엄

방송/5월 12일 · 담당PD/김하정

오스틴 파워는 호시탐탐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류의 적 닥터 아블을 물리치기 위해 중환무진 활약하는 영국의 비밀요원이다. 1967년 그는 냉동로켓을 타고 우주로 사라진 닥터 아블을 잡기 위해 냉동인간이 되어 30년을 기다린 끝에 숙명의 대결을 벌인 후, 아름다운 부인 바네사와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신부 바네사는 닥터 아블이 보낸 사이보그였다. 냉동로켓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닥터 아블은 지구 파괴의 음모에 방해가 되는 오스틴을 제거할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게 되는데...



여명의 더 히어로

원제/THE HERO

감독/두기봉

주연/여명, 유청운, 몽가혜

방송/5월 19일 · 담당PD/김박

냉철한 카리스마와 위력적인 생권총의 사나이 잭(여명 분). 단 한 번의 패배와 실수도 모르는 무적한 남자 차우(유청운 분). 패이와 아수가 이끄는 두 거대 조직이 홍콩의 밤을 양분하고 그 외 어떤 조직의 성장도 용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잭과 차우는 각각의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충실한 오른팔이자 실세이다. 서로의 실력과 인간미에 끌리게 된 두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직은 너무 커버린 잭과 차우를 제거하려는데...

나인 먼스

원제/NINE MONTHS

감독/크리스 콜롬버스

주연/휴 그랜트, 올리비아 무어

방송/5월 26일 · 담당PD/김하정

생명의 기적, 그 경이로움을 코믹 터치로 영상화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가족의 달에 딱 맞는 영화다. 아동 심리 정신과 의사인 사무엘 포크너는 절대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신조를 갖고 살아가는 남자다. 사무엘은 애인 레베카와 동거하며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어느 날 갑자기 레베카로부터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사무엘은 당황한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에 꿈에 부풀어 있는 레베카를 보고 아기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사무엘이 진심으로 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 챈 레베카는 사무엘이 무성의하게 대하자, 사무엘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SBS 방송아카데미 제10기 수강생 모집

SBS방송아카데미는 교육의 질과 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

위성 방송 실시, 프로덕션 활성화, 영상 산업계의 팽창 등 방송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SBS방송아카데미에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

SBS방송아카데미의 특징

- 국내 유일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인 마이크로 방송 실시
- 방송사와 똑같은 방송제작 시스템과 국내 최대의 시설 및 장비 보유
- 현업 출신의 실무 경험 풍부한 교수진과 톱클래스 외부 강사진
- 전일제 교육 및 최다의 실습, 촬영, 녹화, 편집시간
- 담임 교수제로 취업에 대한 성의 있는 사후 관리(취업률 평균 65%)

1. 모집 요강

모집 과정	지원 자격
PD	전문대졸(예정자) 이상
카메라	
아나운스·MC	
방송 기술	
구성 작가	
영상 번역·더빙 연출(영어)	
영상 번역·더빙 연출(일어)	
영상 무대디자인	학력제한 없음
드라마 작가	
시트콤 작가	
분장·광고 메이크업	
미디어 음악·음향	
디지털 영상 연출	
영상 조명	
인터넷 방송 PD	

2. 전형 방법

서류 접수 후 면접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5월 22일(월)~6월 2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SBS 본사 1층(여의도), SBS방송아카데미 사무국
인터넷 접수도 가능(홈페이지 참조)

4. 제출 서류

지원서·자기 소개서(SBS방송아카데미 소정 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5. 모집 설명회

일시: 5월 27일(토) 오전 11시
장소: SBS방송아카데미

6. 문의처

전화: (0344) 916-0144/5
홈페이지: www.sbsacademy.co.kr
PC통신: GO SBS(방송아카데미)

· 각 과정 모두 6개월 과정임

· 2000년 7월 7일 개강 예정

SBS 창사 10주년 기념행사

포크 페스티벌 2000

2000년 5월 27일(토)~28일(일)

오후 7:30~10:00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특별출연: RAIN의 천재개인 아티스트
호세 펠리시아노



- 주최: **SBS** ibnib.com
- 주관: 한국포크싱어협회
- 협찬: **동양화재** **삼성생명**
 한화증권(주)
 현대투자신탁
- 후원: 서울특별시
- 좌석: R석 50,000/S석 40,000/A석 30,000

출연 김목경/김종환/남궁옥분/박학기/서유석/송창식/시인과 춘정/안치환
유리상자/이장희/이정선/임창제/이승열/이승재/장필순/조덕배/조규찬
정태준·박은옥/하남석/한대수/한동준/해바라기

초대가수 호세 펠리시아노/조동진/조관우/김건모

* 출연진은 변동될 수 있음.

구매방법

프로티켓
proticket.com

주택은행
전영업점

Hotmail
입장권 자동발매기
지아힐릭 및 편의점

▶ 전화예매 : 1588-3888

▶ 공연문의 : (02)369-2914

▶ 단체할인 : (02)369-1571
(30명 이상)

▶ www.ibnib.com

5월15일까지 전화예매를 하시면 10% 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교보 문고	736-1444
중로 서적	722-7843
동화 서적	3420-2111
서울 문고	553-3038
울지 서적	774-2209
외환카드 통신판매	524-8500

생명으로 이어지는 작은 관심

사 랍들의 말소리며, 거리의 자동차 소리,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리 등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말을 듣고 소리를 접하며 자라난 사람으로서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화두였고, 「그것이 알고 싶다 - 청각장애인의 소리 찾기」를 제작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점이었다.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찾아 헤맸고

가슴 아픈 시연을 간직한 장애인들을 만났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올해 여섯 살이 된 오은혜, 은혜는 7개월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조산의 후유증 때문에 여러 차례 뇌 출혈을 일으켜 시력은 고도 근시, 청력은 고도 난청에 이른 아이였다. 엄마는 끊임없이 글을 읽어주고, 단어를 이야기하게 하는 등 혹독하게 말 공부부를 시키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른 아이들과 같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채.

그러나 은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은혜에게는 엄마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모든 소리들이 그저 웅웅거림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에게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은 있었다. 인공 와우 수술. 그것이 은혜에게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3,000만 원이나 하는 인공 와우에 수술비, 언어 교육비까지...

27살의 건장한 한 청년의 얘기는 일반인들의 무관심이 장애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수술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제 성인이 되어 버린 그 청년에겐 이제야 알게된 인공 와우 수술은 너무 늦은 얘기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1989년 첫 시술 이

래 약 300여 명이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위험하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인식과 3,000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 때문에 그 동안 많이 보급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당장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평생 장

애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비한다면 그것은 그리 크지 않은 부담 일텐데...

아빠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서, 울리지도 않는 수화기를 들고 혼자 말을 하던 은혜는 얼마 전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소리를 찾고 싶어하는 제2, 제3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SBS**



일러스트 · 이은영